



예술의 숲에서 타인의 삶을 응원하다

정승우 유중재단 이사장(법학 99)

그가 즐겨 먹는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마음'이다.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는 자기 안에 없던 마음을 기꺼이 삼킨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든 할만해진다. '일체유심조'란 말의 의미를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나고 자란 서초구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든 지 이제 8년. 지친 도시인들을 위로하고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을 그는 누려왔다. 단지 마음을 먹을 뿐인데 날마다 조금씩 행복해진다. 글 박미경 사진 김선아

오가며 쉬어가는 한 그루 정자나무처럼

서울 강남에도 애향심은 흐른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그는 자신의 '고향'을 문화 예술 특구로 만드는 게 꿈이다. 유중아트센터는 그 꿈으로 가기 위한 '동네 쉼터'다. 오가며 쉬어가는 한 그루 정자나무처럼,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이 수시로 들러 놀다 가기를 그는 소망한다. 도심 속 평범한 건물인데도 나무 향기가 깊다. 삼림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한 까닭이다. 귀로 스미는 음악은 시골마을의 새소리 같고, 눈에 깃드는 미술품은 산골짜기의 꽃동

산 같다. 오감이 동시에 열린다. 여기가 자연 속인지 빌딩 속인지 분간이 쉬이 되질 않는다.

“예술이란 게 자연의 소리와 형상을 모방하다 생성된 거잖아요. 자연 안에선 음악과 미술이 하나예요. 아트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한 것도, 미술과 음악이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는 다원예술프로젝트를 시도해온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처음엔 다들 생소해 했지만, 이젠 다들 편하게 즐기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일상에 예술이 스며드는 걸 볼 때 정말 행복해요.”

유중아트센터가 설립된 건 2011년 11월의 일이다. 그가 가족 소유 건물에 '비영리' 문화공간을 꾸민다고 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하나 하나 리모델링했다. 아담한 아트홀과 아늑한 갤러리에 그의 맘이 오롯이 스며있다. 몇 년 전까지 직접 운영했던 1층 카페는 세계 최초 삼림욕카페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다. 차마시러 들어왔다가 음악과 미술의 향기에 빠져버리는 일종의 '동네 사랑방'이었다. 지금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카페가 남긴 향기는 여전히 그윽하다.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지난 8년간 유중아트센터는 250회가 넘는 공연과 200회가 넘는 전시를 관객에게 선사했다. 서초구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게 하겠다는 꿈이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다. 그보다 주목할 것은 1,000여 명의 연주자와 미술 작가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청년예술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문화예술의 꽃은 피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한다. 지원할 마음을 '먹은' 것은 그 때문이다.

“지원이라는 말보다 '협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저도 함께 성장하니까요. 청년예술가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뿐, 그리 대단한 일도 숭고한 일도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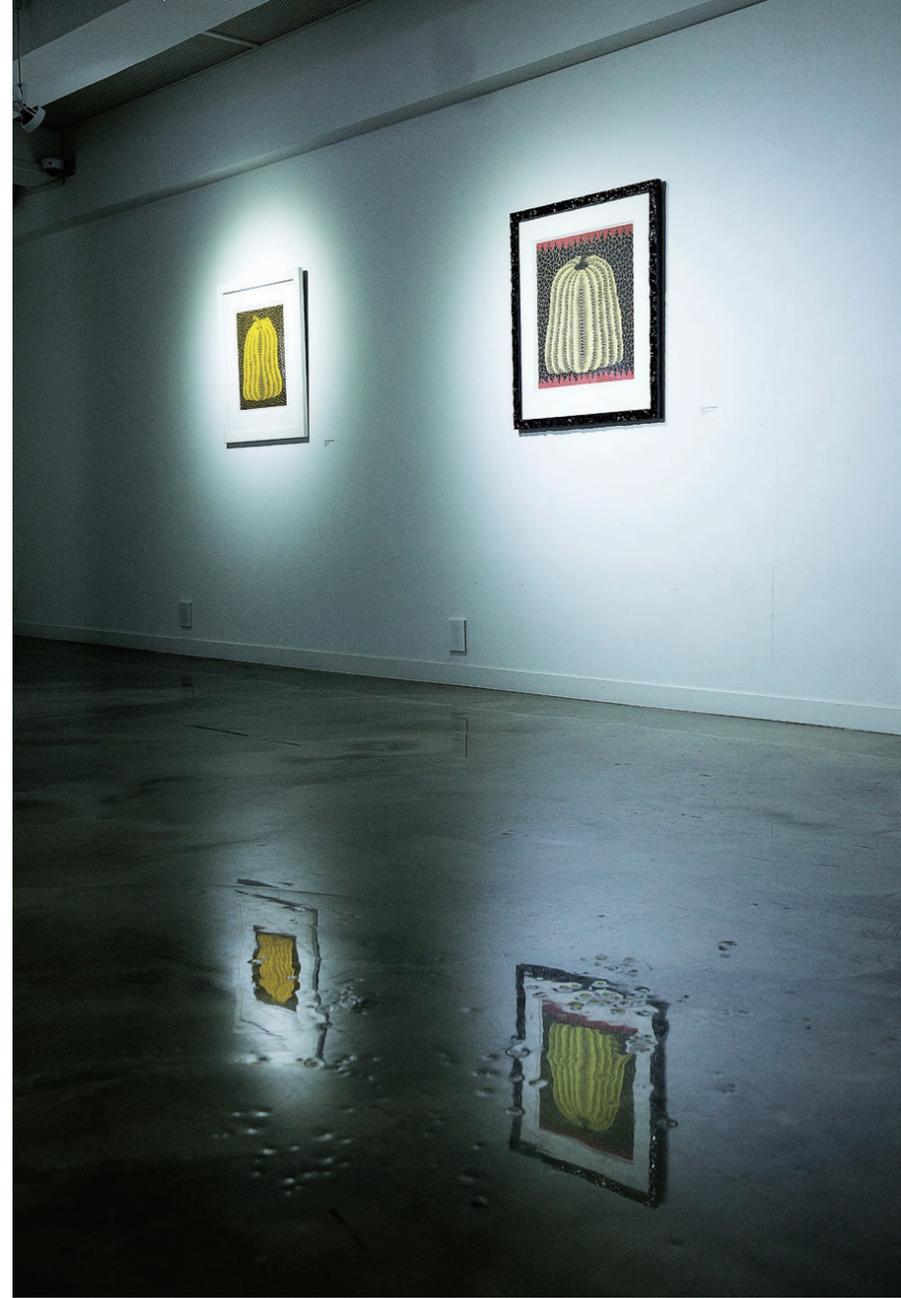
① 유중갤러리 지하에 위치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창의센터
②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연이자, 젊은 연주자들의 클래식 콘서트 '유중의 밤'

청년예술가를 향한 그의 지원은 조금씩 모양새를 달리 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술가를 '직접' 후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분기별로 7명의 신진작가를 선정해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했고, 영재 오디션을 통해 재능 있는 음악인을 손수 발굴했다. 지금은 문화예술포럼을 마련해 청년예술가들이 스스로 예술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술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진화'를 거듭 중이다.

그의 나눔 철학은 비단 예술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유중아트센터 지하엔 200평 남짓의 스타트업 로ഫ미가 들어서 있다. 고려대 로스쿨 졸업생의 창업과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법창의센터'라면 법조타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후배들이 공간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미래 법률가들'을 위해 흔쾌히 공간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법창의센터는 최근 개통한 서리풀 터널 덕분에 법조타운과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는 이곳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란다.

“법학과에 입학한 건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어서였어요. 사법고시에 낙방하면서 법률가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엔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문화예술 분야는 기회 불평등이 엄청 심각한 곳이에요. 일찍부터 재능을 키워 음대나 미대를 나와도, 재능을 펼치며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예술대학을 나온 대다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고,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해서 제대로 된 밥벌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할 생각이예요.”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는 지금도 법학은 아직 그의 곁에 있다. 하반기 학위취득을 목표로 현재 법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중이다. 법이 지식의 밑바탕에 있어야 사업도 '원칙대로' 할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엔 별도의 예술법이 없다. 예술 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법규가 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과 관련된 법률지식을 쌓기 위해 그는 오늘도 법학의 숲을 거닐고 있다.



같은 길을 걸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유중은 제 삶의 밑그림이 돼주신 외증조할아버지의 호예요. 어린 날 할아버지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면 문화예술이 중요해질 거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림도 음악도 알아야 한다... 그 덕에 바이올린이며 피아노를 일찌감치 배울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모교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도, 음악이 주는 위로가 컸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그는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삼미재단과 대우조선해양이 그곳이다. 삼미재단에 다닐 땐 중고교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와 희귀난치병 아동 지원업무를 맡았다. 그때 확신했다.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을 접목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다.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할 땐 거제도의 외국인 선주 자녀들이 다니는 옥포의 국민학교(현 거제국제외국인학교) 관리를 담당하며 학교 운영의 경험을 쌓았다. 길지 않은 직장생활이었지만, 예술의 힘을 깨닫고 운영의 묘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솔직히 좀 외로워요. 문화예술 쪽에선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예술을 어떻게 아느냐는 의심을 아직도 종종 보내와요. 조금 슬프지만, 곳곳이 이 길을 걸으려고요. 칭찬받으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시작한 일이니 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 비록 적은 도움이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건네면 언젠가는 흠뻑 젖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와 같은 길을 걸어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는 무려 스무 개가 넘는 직함을 갖고 있다. 대구 사진비엔날레 육성위원, 서초장학재단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진흥 중장기계획 TF 위원... 분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야 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넉넉히 들려준 뒤 서서히 일어선다. 베타이는 붉은데 뒷모습은 푸르다. 🌿